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멀리서만 바라보던 산을 이즈음 자주 간다. 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조망하는 것도 좋지만 걷는 즐거움도 그에 못지않게 때문이다. 걷기에는 발로, 다리로, 몸으로 만나는 그윽한 쾌감이 있다. 뜻하지 않은 만남과 예기치 못한 기쁨, 행복감, 여러 생각과의 동행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준다.

산비탈 바윗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볍게 몸을 흔드는 나뭇잎과 그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맑게 빛났다. 문득 나무그루터기 위로 도마뱀이 보였다. 축축하고 날렵해 보이는 자태였다. 의외로 호기심이 생긴 나는 좀 더 가까이 도마뱀한테로 다가갔다. 어라? 도망도 안 가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암갈색의 등과 활짝 펼친 네 개의 발 그리고 살짝 구부린 긴 꼬리가 징그럽기보다 앙증맞아 보였다. 두 눈은 즐고 있는 것 같았다. 동족도 아니고, 익숙한 사이도 아니건만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도 마주했던 것처럼...

산꼭대기로 소풍을 갔었다. 그곳은 비행기(조그만 헬기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도 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넓은 벌판이 있어 전교생이 모여 놀기 안성맞춤이었다. 사방팔방 조망하기로도 그만한 장소가 없었

도마뱀

다. 드넓어만 보이던 강이, 마을들이, 학교가, 운동장이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 끝자리 사이로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였다. 우리집 마루에서 들던 그 소리의 정체가 비로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비밀의 장막을 걷어낸 듯 세상은 환하고 넓고 아스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어? 도마뱀, 도마뱀이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크고 분명한 소리였으나 어디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급하게 더 크게 외치는 소리.

“야! 니 어깨에 도마뱀이 올라갔다니까.”

그 눈빛이, 손가락이 모두 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제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물큰한 느낌, 축축하고 스멀스멀 징그러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채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할 만큼 얼어붙어 버렸다. 그때 무엇인가 내 어깨를 꼭 건드렸고 그와 동시에 함성이 터졌다. 함성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다.

“와- 거머머가 생명의 은인이다. 도마뱀이 어깨를 넘어가면 죽는다고 했더니 거머머가 구해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

생명의 은인 덕에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나는 아직 얼떨떨했다. 게다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 하필 ‘거머머’라니. 그로 말하자면 벌레보다 징그럽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놈(!)이었다. 얼굴이 거뭇다. ‘거머머’라 불렀던 그는 누구 골탕 먹이는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고무줄 놀이 하는 우리를 불시에 습격하여 줄을 끊어가 버리는 것도 그였고 ‘아이스계기’를 외치며 지

마를 걷어올리는 것도 그가 제일 앞장이었다. 내가 당한 것만 해도 부지기수였다. 며칠 전에도 복도를 지나다 갑자기 가슴팍을 툭 치고 도망갔다. 그 바람에 비를 넘어질 뻔하지 않았던가.

저만치서 ‘거머머’가 헤매거리고 있었다. 막대기를 까불거리며 보라, 이걸로 내가 너를 구했대니까! 의기양양 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영 입상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얼른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때 마침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 장기자랑을 시작한다는 신호였다. 모두가 후닥닥 무대 쪽으로 몰려갔다. 소풍은 절정을 향했다.

그로부터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 아득히 멀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잊고져 일처럼 오싹 어깨를 움츠린다. 누군가의 말대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이었지 않은가. 그날 만약 도마뱀이 내 어깨를 넘어버렸다면 어찌 됐을까? 정말로 죽었을까? 도마뱀은 어떻게 내 어깨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가 장난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법인은? 더 의문스러운 건 ‘도마뱀이 어깨를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이다. 그 말은 누가 했더라? 어디서 나온 말이지? 그리고 그건 참일까, 거짓일까? 생각할수록 그 진위를 알 수도 없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의문투성이의 말들이다. 솟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아무리 헤아려봐도 알 수 없는 삶처럼...

어쨌거나 ‘거머머’가 생명의 은인인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의 공포를 어찌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득해진다. 그날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社說

광주 K팝 문화 중심지 효과 관광으로 연결을

광주지역 구도심의 중심지인 충장로에 ‘K-POP’ 스타를 소재로 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팬덤 문화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케이팝 스타의 생일 날 팬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는 일명 ‘생카(생일카페)’를 즐길 수 있는 전용 카페가 조만간 충장로에 들어설 예정이다. 팬들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생일 파티를, 전용 공간에서 맘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장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장로는 문화전당과 동명동, 대인시장 등과 연계된 문화관광 상권임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유카페 오픈을 계기로 충장로가 지역은 물론 전국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활력 상권으로 되살아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카페가 활성화되도록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인근 골목에 조성된 K-POP 스타의 거리는 외국 팬들도 찾아오는 곳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는 수시로 리모델링을 통한 단장과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지 바란다.

생일 파티를 팬들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번 주 공식 오픈하는 공유카페는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무료 개방 여부가 결정된다. 공유카페인 ‘생카’는 광주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의 문화로 굳어진 것으로, 최에 스타 생일에 맞춰 팬클럽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빌려 굿즈와 소품으로 내부를 꾸미고 즐기는 자취파티이다. 충장로는 문화전당과 동명동, 대인시장 등과 연계된 문화관광 상권임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유카페 오픈을 계기로 충장로가 지역은 물론 전국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활력 상권으로 되살아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카페가 활성화되도록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인근 골목에 조성된 K-POP 스타의 거리는 외국 팬들도 찾아오는 곳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는 수시로 리모델링을 통한 단장과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지 바란다.

재공모 돌입 쓰레기소각장 이변이 마지막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지만 내 주변 설치만은 반대하는 남비현상들이 또다시 광주에 나타났다. 이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 탓에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광주시는 2022년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밟았으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소각장 후보지를 먼저 선정하면 이후에 시가 주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선 자치구 선정, 후 광주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앞으로 각각 1개 이상의 후보지 신청을 받아 타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구정들의 신청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광주시는 해당 자치구와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과 특별지원금 500억원,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5개 구가 합의 끝에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 방식을 바꾼 만큼 사업 추진에 머뭇거리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청장들은 구민 눈치보기와 다음 선거를 계산해 ‘내 지역만큼은 소각장 설치를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광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해 공모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는 공모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의 대가로 막대한 페널티 비용을 물도록 하는 대신, 후보지 선정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

지방 없으면 서울도 없다

는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지방자치체에 대한 재논의와 변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조는 지역특성에 맞춘 정책 실행의 한계와 지역의 자치권 제약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직접적으로 입법·행정 등에 참여하는 독일과 지방자치단체 대표에 의해 선출된 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프랑스의 양원제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와 달리 독일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연방의원과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상원 등 양원제로 운영되며, 연방상원은 법률 제안권이나 법률안 및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한편, 연방과 주 간의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등 지방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강력한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2021년 지방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확대를 추진한 지역병원 개혁 법안의 거부나, 2023년 지역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휘슬블로어 보호법’ 거부 등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의결의 기준이 됐던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중앙정부 정책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익을 제기하면 상·하원 대표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단방제 국가인 프랑스 또한 지자체 대표에 의해 상원을 선출하고, 이들은 지방을 대표해 입법 절차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권과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 권한이 부여된다. 프랑스 상원도 2024년, 중앙정부가 주도한 EU-캐나다 포괄적 경

제무역협정 비준 법안에 대해 지역농업 차원의 불공정 경쟁과 식량주권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물론 국정 방향에 부합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지역에 맞는 자율성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함이 되려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더 나아가 조화로운 지역균형, 지역 주도의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절경일 수 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정책 조정 등을 위한 상설기구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체제 또한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하향식 집행 일선도인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되고, 지방정부 의견이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록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되긴 했으나, 우리나라 또한 제1차 헌법개정 당시 민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제를 헌법에 최초로 규정하고, 제3차 개헌으로 양원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실현된 바 있다. 이미 양원제를 경험했던 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양원제 부활이나 이에 준하는 입법, 행정, 재정 측면에서의 실질적 권한 배분 및 이양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변화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지역소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이 공명불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



이여성 전 광주전남병무청장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매스컴의 역할

있어 자긍심을 느끼지만 과학, 의학, 문화, 기타 예술 분야 등에서 국가 위상에 비해 자랑할 만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지난해 국제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와 영향력 등이 ‘네이처 인덱스’ 종합순위에서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도 중국은 10위 안에 중국과학원(1위) 등 7곳이 포진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100위 안에 든 기관이 서울대는 59위, 카이스트는 84위에 그친다. 500위 안에 든 대학, 연구기관은 10곳에 불과하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백인계획’에서 ‘천인계획’, ‘만인계획’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과학굴기’ 추진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인재를 불러들여 수억 원의 기본 보수, 주택 구입 보조금, 생활 정착금, 계약 보너스 등을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 인재들도 끌어들이며 똑같이 우대하는 반면에, 우리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유명 석학마저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이공계 학과로 가는 수재들이 많았지만 뒤로 밀린 지 오래다. 요즘은 모두 의대만 지원하는 현실이 되어 ‘의한민국’이란 말까지 나온다니 나라의 미래를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과학자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게 제대로 된 사회적 것이다.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미래 과학자와 인재들에게 긍지를 살려 주고

영광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TV 등 매스컴은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한심한 정쟁이나 일식적 흥미 위주 프로보다 다양한 학자 등의 연구 성과 발표 기회를 늘려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재능과 기술 겨루기,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백일장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시청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리하여 호기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장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야 한다. 다방면에서 국위 선양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인재를 육성하여 장차 많은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나와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외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의욕을 북돋아주고 소질을 계발하는 조직적인 인재 양성 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하겠다.

과학, 의학 등 학문 연구, 다양한 예능, 기술 등 국적을 높이는 분야에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입국으로 가는 국가 발전의 동력을 견인해 주는 역할 또한 매스컴의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함평 금산리 방대형(方大形) 고분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석분(甁石墳, 돌로 봉분을 덮은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은 가로 54m, 세로 46m, 높이 8.9m에 달하는 초대형급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닭, 말 등 동물을 형상화한 ‘하니와’가 출토됐고 사람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토기가 발굴돼 주목받았다. 일본어로 ‘하니와’라고 하는 식물(埴輪)은 일본 고훈시대(古墳時代, 3~7세기) 대형 분묘 주변을 따라 세워진 토기다. 역시 중국산 청자연판문완, 후유도기 등 이 출토돼 이 고분이다양 한 국제교류의 산물이라는 것을 엿보게 한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은 고고학계의 미스터리다. 2014년부터 모두 4차례 시·발굴 조사가 이뤄졌으나 매장시설이 드러나지 않았다.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매장 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은 탓에 고분 축조시기 폐기-매몰된 권력자의 묘일 가능성, 제사와 관련한 의례시설, 분구 축조 과정의 구조물이라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남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사적지정 학술대회’에서도 고분 성격을 놓고 의견이 맞섰다. 박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하니와와 부장품으로 보이는 개배(굽이 없이 뚜껑이 덮여 있는 접시), 통형기대(긴 원통을 세운 그릇받침) 등이 발굴된 점으로 미뤄 고분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은 6세기 전·후에 조성된 공주 송산리 D지구 적석유구(積石遺構, 돌을 쌓아 만든 구조물) 등을 사례로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적석유구 내부에 특별한 시설이 없고 고의로 파손한 유물이 주로 수습됐다는 점을 들어 “금산리 고분을 고분으로 규정하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최근 호남 지역에서 매장시설이 비어있는 유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결과만으로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분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등 노력이 더 해져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함평의 미스터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